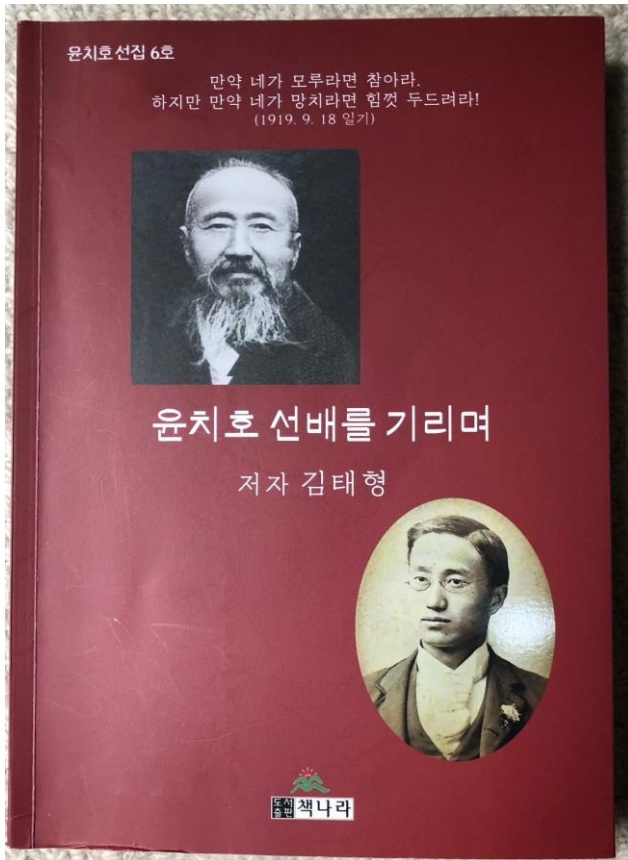


김태형 동문이 “윤치호 선배를 기리며” 란 수상집을 출간하다.



1963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한 아해 김태형 동문은 Atlanta, GA 에서 Pediatric Oncology 전문의로 Emory University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9년에 “월간신문예”에 시로 데뷔하여 문학활동을 하던 중 한 세기 전에 존재했던 한국의 윤치호 선생의 영문일기가 UNESCO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미국이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. 윤치호 선생은 10대 말부터 거의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쓴 그의 일기는 한문(1883-1887)으로 시작하여 한동안 한글(1887-1889)로도 쓰였다가, 그후 오랜기간 동안 영어(1889-1943)로 기록되었다. 조선 말기 살았던 윤치호 선생은 1891년 Emory University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며 졸업생으로 저자는 Emory University 출신인 윤치호의 일기를 읽으며 그가 한국 근현대사의 개혁적인 사고를 지닌 지식인이며 시대의 선

각자임을 알게되고 그의 치적을 검토하던 중 '애국가 작사자'가 윤치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평론을 쓰면서 또 윤치호 선생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생존의 방편으로 친일적 행동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진실이 승리하여야만 한다는 소망에서 이 글을 썼고 이책이 2022년 9월에 출판되었다...